

출판과 독서

—한국인의 독서실태와 환경에 대한 검토—

이 두 영
출협 사무국장

1. '글로 쓴 것'의 사회화와 개별화 과정

독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도서자료, 즉 책을 제공하는 일이다. 독서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는 책에의 접근가능성, 다시 말하면 출판의 생산과 분배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독서의 동기유발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보를 문자화한 것, 즉 '글로 쓴 정보'의 가장 좋은 사회화 방법이 출판이고, 그 '글로 쓴 정보'를 '읽는 것'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위이다. 출판과 독서의 관계를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등식화시킬 때, 양자간의 거리는 나라마다 개인에 따라 멀거나 가깝게 나타난다.

출판은 독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런데 '읽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발전속도가 더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현대사회가 지식, 정보산업 사회화 되어가면서 독서내용의 다양화와 풍부화는 국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원시사회나 후진사회에 있어서는 식료의 생산과 분배가 중요시되고 재산가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지만,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얼마만큼 지배할 수 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독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기능을 개발하고 사회성장을 촉진시키고,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강대국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GNP 보다 독서에 의한 국민의 정신적 자원의 풍성도에 따라 결정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책의 힘은 나의 힘이요 나라의 힘인 것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국민은 위대한 것이다.

2. 한국인의 독서실태

(1) 고학력사회에서의 독서 부재현상

지난 20 여년동안 교육의, 특히 고등교육의 폭발적 보급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생

활수준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과 레저시간의 증대 등은 독서생활에의 여건을 크게 호전시켰고 잠재독자층도 확대되었으나 선진국 국민과 비교해서 우리의 독서량이나 독서에 대한 지출액은 아직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서실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서실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현재 2.5권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이 10.1권, 미국은 8.2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 이로 미뤄볼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사람의 4분의 1, 미국사람의 3분의 1 정도밖에 책을 읽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 한달 평균 877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다. 도서구입비가 독서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늠해 보는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4년도 도시가구당 품목별 소비지출 형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가정에서는 월평균 29만 9천 3백 92원(가족수 4.28명 기준)을 소비지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서대금으로 877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잡지 139원을 합쳐 책값으로 모두 1,01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도서구입비를 환산해 보면 2,458원에 불과하다.

84년도 발행도서의 평균가격이 3,635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생활자가 1년에 책 한권도 제대로 사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평균도서가격이 608원이었던 69년도의 1인당 연간도서구입비가 1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69년에 2,686부이던 도서의 종당평균 인쇄부수가 15년이 경과한 지난해엔 3,333부로 겨우 24%밖에 신장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독서인구의 증가나 도서시장의 규모가 결코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독서생활의 실상을 외국의 도서구입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일본이 42불, 독일(서독) 41불, 미국 31불, 영국 26불, 프랑스 17불을 각각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비해 출판활동이 훨씬 미약한 동남아제국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각국의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도서구입비 비교

국 가	년도	도서구입비	평균도서가격	비 고
한 국	1984	\$ 2.73 (₩2,458 원)	₩3,635 원	
일 본	1982	\$ 42.00 (9,100)	900	
서 독	"	\$ 41.00 (DM 103)	DM 26.48	

미 국	"	\$ 31.00	\$ 12.75	하드카바(\$ 23.26) 페이퍼백(\$ 2.93) 의 평균치
영 국	"	\$ 26.00		
싱가폴	1981	\$ 22.70		
프랑스	1982	\$ 17.00 (Fr 133)	Fr 21.22	
말레이시아	1981	\$ 5.60		
필리핀	"	\$ 1.20		
태 국	"	\$ 0.80		
인 도	"	\$ 0.40		

국가간의 소득격차를 감안한 소비지출 구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책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사람의 책값 부담비율은 총 소비지출의 0.36%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0.03%만을 책값으로 쓰고 있다. TV 시청, 신문구독, 오디오 제품, 장난감, 스포츠 용구, 오락도구 등에 투자하는 교양오락비중에서 책값의 비중이 미국 사람은 6%인데 비해 우리는 0.8%로 그 격차가 훨씬 커진다.

선진국을 능가하는 교육열과 1980년 이후 고등교육(대학)의 대중화 추세가 급격히 진전되어 왔고 그러한 추세는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서율이 낮은 이유는 교육방법의 결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영상매체에 빼앗긴 독서문화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전국민의 4분의 1만이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독서율은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표 2> 1983年度 新聞과 雜誌·冊의 讀書狀況과 T.V 視聽狀況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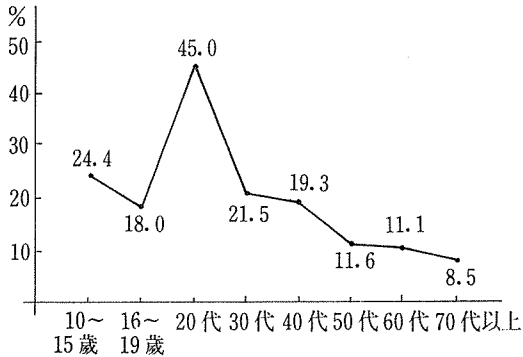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81년	83년	증 감	81년	83년	증 감	81년	83년	증 감
雜誌·책	行爲者率	28.20%	24.99%	-3.21%	26.90%	24.42%	-2.48%	27.30%	25.52%	-1.78%
	平均時間 (행위자평균)	1시간 5분	1시간 2분	-3분	1시간 11분	1시간 5분	-6분	1시간 18분	1시간 13분	-5분
신 문	行爲者率	27.40%	23.36%	-4.04%	25.00%	21.66%	-3.34%	19.30%	15.77%	-4.08%
	平均時間 (행위자평균)	36분	37분	+1분	39분	37분	-2분	39분	37분	-2분
T.V	行爲者率	87.39%	91.38%	+3.99%	89.71%	92.37%	+2.66%	92.18%	94.07%	+1.89%
	平均時間 (행위자평균)	2시간 04분	2시간 21분	+17분	2시간 43분	3시간 05분	+22분	3시간 32분	3시간 49분	+17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전체 국민 가운데 잡지나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83년도의 경우 각각 24.99%, 24.42%, 25.5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81

년과 비교해서 요일에 관계없이 감소하고 있는데 평일과 일요일에는 감소폭이 특히 크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평일 -3.2%, 일요일 -5%)

연령계층별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대(45.0%)가 가장 많이 읽고 있고 30대 부터는 21.5%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70대 이상의 계층에와서는 8.5% 만이 독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1. 참조)

〈圖 1〉 韓國의 年齡階層別 讀書率推移



연령이 많은 계층일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선진국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19세미만의 독서율이 선진국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다. 특히 81년에 비해 16~19세의 독서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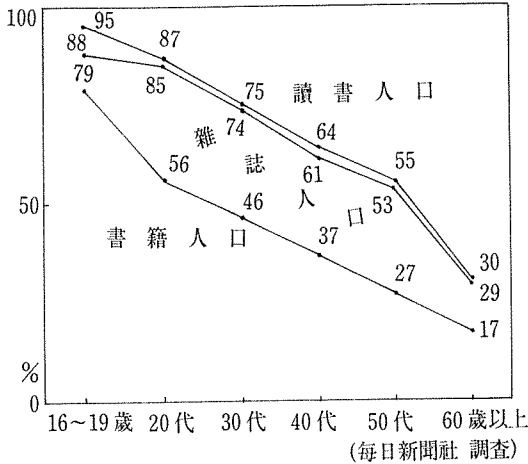
독서하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시간을 보면, 평일 1시간 2분, 토요일 1시간 5분, 일요일 1시간 13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동안 읽는 연령계층은 10~15세의 연령층(평일 44분, 토요일 51분, 일요일 1시간 2분)이고 그다음 40대, 50대, 30대순으로 적게 읽는다. 평균 독서시간도 20대가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일에 관계없이 1시간 이상씩 읽고 있다. 그러나 16~19세의 독서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독서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심화되고 있다.

일본 매일신문사의 독서세론조사(도 2. 참조)나 미국의 Book Industry Committee가 행한 조사(도 3. 참조)를 보면 16~19세의 독서율이 20대 보다 많다. 장년기 이후에와서는 일본보다 미국사람들의 독서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히 잠재적독자(Potential readers)의 분포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독자란 독서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어떠한 사정때문에 독서활동이 저지되고 있는 부류들이다. 미국은 이 그룹이 서서히 비(불)독서(non readers)로 빠져들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잠재 독자층의 변화요인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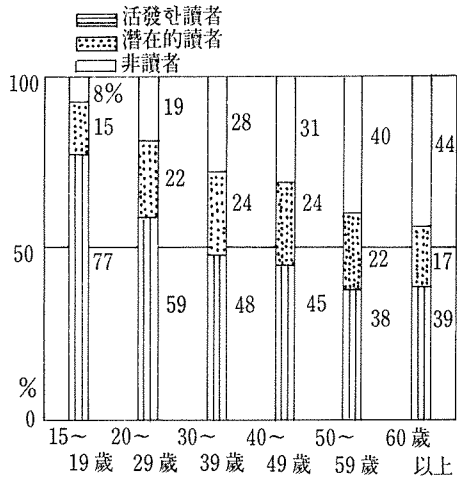
이런 활자매체의 접촉도와는 반대로 텔레비전 시청은 요일, 성별에 관계없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매스미디어 접촉행동 패턴이 TV 시청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

다. 즉 독서시간은 3~6 분씩 줄어든 반면 TV 시청 시간은 17~22 분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독서시간을 TV 에 빼앗기고 있음을 알볼 수 있다. 전국민이

〈圖 2〉 日本의 年齡階層別 讀書率 推移



〈圖 3〉 美國의 年齡階層別 讀書率 추이



TV 를 보는 하루 평균 시간량은 평일 2시간 21분, 토요일 3시간 5분, 일요일 3시간 49분으로 독서시간의 2~3 배 이상이나 많다. 그나마도 81년과 비교해 볼 때, TV 시청 자율은 평일 +3.99%, 토요일 +2.66%, 일요일 +1.89%로 늘어나고 있다. 평일은 TV 시청자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증가폭이 더 큰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남성의 토요일(+34)이다.

프랑스인들의 여가행동은 우리와 대조적이다. 프랑스 정부당국(자유시간성)의 설문조사(대상 2천명)에 의하면 자유시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활동은 독서이며, 그다음이 일요목공, 원예, 편물, 요리, 스포츠 등이라고 한다. 그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한국인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처럼 TV에 열중하지는 않는것 같다.

3. 책읽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

독서가 '취미'인 사회와 '생활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의 격차는 문화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많은 사람에게 독서가 아직도 취미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사회를 독서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문화의 가치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독서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다음 몇가지 과제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독서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졸업과 동시에 책과는 결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 물질만능, 배금주의 지나치게 팽배하고 있으며 정신적 가치는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30대의 독서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체국민이 도서관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요령주의, 한탕주의를 탐닉하게 되는 것은 독서량이 적은데서 오는 사상의 빈곤 때문이다.

정보가 힘의 원천인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을 절대 필요요소이다. 그것은 이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창조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태도는 독서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경제제도의 운용기조는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제도가 독서의 가치를 보강해주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가정에서도 또한 독서풍토조성에 신경써야 한다. 책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원천이 책속에 있다는 자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강한 지적 향상심을 자극해야 한다.

둘째, 초·중·고교 교과서에 그 단원과 관련된 독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우수도서에 대한 독서를 권장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독서안내를 한다면 독서에 대한 동기유발도 되고 학력에 맞는 독서기준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어 독서지도의 효과도 클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저자의 이름조차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독자지도 측면이 경시된 한 증좌이다.

또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혀야 할 좋은 책에 대한 소개를 금지시켜 오고 있다. 교사가 좋은 책을 권하는 일을 빼놓고 어떻게 만족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마음놓고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계, 부실한 독서습관마저 단절시키는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이 독서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제도는 독서습관의 계발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고학력사회에서의 독서부재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왕성한 독서의욕을 가진 국민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그들이 중·고교생이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한 맹렬한 수험 전쟁으로, 교과서나 수험참고서 이외의 책을 본다는 것은 죄악시되어, 완전히 독서활동이 단절된다.

또 과중한 학과부담도 독서저해요인이다. 국어시간을 늘리고 작문시간을 중시하여 독서의 결과가 입시 및 학과성적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명년부터 대학입시 과목으로 논술고사가 추가되어 독서교육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넷째, 도서관 시설의 확충과 도서관 이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락한 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장서량도 형편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155개 고교도서관이 83년도 도서비가 10만원 밖에 안되는 곳이 2개교나 되고, 50만원 미만인 27개교나 있다. 교육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의 예산중에 일정액을 도서 구입비로 할당하는 것을 시급히 의무화해야 하고, 믿을수 있는 기관에서 필독도서로 선정된 책은 적어도 한학년 전체가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복수(50~100권)로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책과 친하고 도서관의 이용을 생활화하려면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독서지도'와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설정 운영하여, 평생독서로 이끌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실정은 더욱 빈약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84년도 공공 도서관의 월간 도서구입비의 평균예산이 62만 9천여원에 불과한 실정을 조사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8개 시·도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평균점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강원도의 11개 도서관의 월간 평균도서구입예산은 8만여원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 공공도서관의 이처럼 영세한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서관세를 신설하여 도서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